



선거 끝 벽보 철거 6.13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끝난 14일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남양아파트 일원에서 관계자들이 선거 벽보를 철거하고 있다.

“국민, 북미회담 결과 적극 지지”

문 대통령 “남북-북미관계 선순환 발전... 비핵화 조기실현 노력” 폼페이오 “문 대통령,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에게 “한국 국민이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폼페이오 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사용할 경우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한국 국민”이라며 이렇게 말했다고 김경겸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렇게 전제된 뒤 “일부 전문가들이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낮게 평가하는 것은 민심의 평가와는 동떨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선순환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확실한 비핵화를 조기에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전문가들의 저해는 북미 공동성명에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CVID)라는 문구가 명시적으로 담기지 않았다는 데 따른 비판적 시각을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폼페이오 장관이 한국 언론보도에 소개된 전문가들의 비판적 시각을 국내 여론의 전부라고 오해해 추후 북미간 비핵화 협상에 악재로 작용할 것을 우려, 이를 사전에 진화하려 한 것으로 해석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싱가포르 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그 의지에 대해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크게 믿음을 이뤄내고 싶어 하는 것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주도적 역할을 해 달라”며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관계가 돈독하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나 남북관계 발전 과정에서 긴밀히 협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 내용을 신속

하고 완전하게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이를 위한 한미 간 공조체제와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두 사람은 또 한국전쟁 전사자 유해발굴과 송환에 대해 남북미가 공동으로 작업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언급한 민심은 어떤 기준으로 측정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각종 여론조사 지표, 지방선거 결과 등을 (토대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폼페이오 장관이 문 대통령에게 주도적인 역할을 요청한 것과 관련한 구체적인 설명 요구에 “구체적인 얘기까지는 나오지 않았다”면서 “북한이 비핵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여러가지 과제들에 대해서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보다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해달라

그것이 좋겠다”는 취지였다”고 답했다.

“폼페이오 장관 접견 자리에서 남북미 정상 중전선언과 관련된 언급이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군사훈련과 주한미군 주둔 문제 논의 여부에 대해 “주한미군 문제는 없었다”며 “한미군사훈련 문제는 논의가 있었다”고만 했다. /뉴시스

홍준표, 한국당 대표직 사퇴... 당, 오늘 비상의원총회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광역단체장 17곳 중 2곳 당선에 그쳐 참패한 6.13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 전원 사퇴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14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우리는 참패했고 나라는 회색로 넘어갔다. 오늘부로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다”며 대표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는 “모두가 제 잘못이고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며 “국민 여러분 선택을 존중하고, 당원동지 여러분 후보 여러분 그동안 참으로 수고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디 한미음으로 단합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보수정당으로 거듭나길 부탁드린다”고 말하며 2초간 고개를 숙였다.

그는 선거 패인과 정계 은퇴 여부를 포함한 향후 행보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굳은 표정으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홍 대표는 이어진 정계 은퇴 가능성이 있는지 등 질문에도 입을 굳게 다물고 자신의 처량을 탄 뒤 당사를 떠났다.

홍 대표는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표직 사퇴 사실을 재차 알리며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신보수

주의 정당으로 거듭나기를 부탁드립니다”고 했다.

한국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홍 대표와 지도부가 전원 사퇴했다고 알렸다. 이에 당헌 제30조에 따라 김성태 원내대표가 권한 대행 맡게 된다.

한국당은 “이번 선거에서 보여주신 국민 여러분의 존엄한 심판을 겸허히 받들겠다”며 “금일 자유한국당 홍준표 당대표 및 지도부가 전원 사퇴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15일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차기 지도부 체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뉴시스

▶바로잡습니다

○6월 14일자 1면 ‘민주당, 지방선거 압승’과 관련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1석을 얻게 되어 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한국당 → 1석을 얻은 한국당을 제외함



황영성 당선인

○6월 14일자 2면 ‘광역의원 당선자 명단’에서 김제 1선거구에 더불어민주당 환영석 후보가 50.69%로 당선됐습니다.

전북도의회 39석 중 36석 민주당이 싹쓸이

나머지 3석은 무소속(장수), 평화·정의(비례)

6.13 지방선거를 통해 전북도의회도 새롭게 구성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싹쓸이’를 했다.

14일 전북도의회 등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 개표 결과 전체 39석 가운데 민주당이 3석을 제외한 36석을 석권하게 됐다.

나머지 3석은 무소속(1석·장수)과

민주당(1석·비례), 정의당(1석·비례)이다.

이번 민주당의 대승으로 도의회 또한 다당제 구도에서 일당 독주 체제로 바뀌게 됐다.

또 의정단과 상임위원장 등도 민주당이 독식할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김진성 기자

“튼튼한 지방정부 만들 것”

‘지선 대승’ 민주당 전북도당

6.13 지방선거 전북지역에서 대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튼튼한 지방정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14일 논평을 내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을 선택해 주신 한 표 한 표는 문재인 정부를 반드시 성공시키고 튼튼한 지방정부를 만들어 전북 경제를 활성화 시키려는 엄중한 주문으로 받아들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도민 여러분께 드렸던 공약을 반드시 지켜 내겠다”며 “도민여러분의 엄중한 성원과 주문을 겸허히 받아들여 실천으로 보답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문재인 정부와 도민을 뒷받침할 튼튼한 지방정부를 만들어 전북도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진정한 복지를 반드시 실현하겠다”며 “전북을 성장시키기 위한 대안과 대 도약의 발판이 될 올바른 로드맵을 만들어 내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선전을 펼치신 타 정당과 후보자들 그리고 뜨거운 햇볕아래 열심히 선거운동에 임해주신 선거사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경의를 표한다”며 “선거과정 속의 분열과 반목을 하루속히 극복하고 전북의 발전을 위해 함께 역량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진성 기자

“민심 겸허하게 수용”

평화당 전북도당 “정부에 대안 제시할 것”

민주평화당 전북도당이 14일 6.13 지방선거에 전북도민의 결과를 도민의 민심으로 겸허히 받아들이며 국회의원과 민주당당속속 단체장들이 팔팔뚝처럼 전북경제 위기를 정부와 집권여당에게 강력하게 제안을 할 것이며 월례 회동을 통하여 정부에 대안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회 상임 선대위원장도 “중앙당과 전북도당이 후보들과 함께 6.13 지방선거를 승리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후보들과 당원 동지여러분에게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그러나 광역·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후보들께서 팔팔뚝처럼 주어서 어려움속에서도 값진 승리를 이룰 수 있었다고 말하고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을 통하여 농민의 후손인 평화당 당원 동지여러분과 전북도민께서 전북을 대한민국의

중심, 호남의 중심으로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또한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노력을 다해주신 조배숙대표를 비롯한 정동영, 유성엽, 김광수, 박주현 국회의원님과 박지원 전 대표를 비롯한 중앙당 지도부에게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전북당원동지 여러분을 대신해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문재인정부의 평화적 성공을 기원하지만 전북을 확대하고 경제위기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하지 않고 방관하는 정부를 전북도민들은 분노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알기를 바라며, 지방선거 승리에 취해 오만하고 독선적인 행동으로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지 말아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제5회 한옥마을 품바왕 명인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합니다.

칭찬합니다!

용지 사용부터 친환경용지를 고집하는 EBS의 교육이념을 칭찬합니다

드러지지 않고 묵묵히 친환경을 실천하는 착한기업이 있어서 칭찬합니다. 바로 대한민국 대표 교재인 EBS 교재입니다. 친환경용지로 제작된 친환경 교재를 사용하면 우리 아이의 인성은 물론 환경뿐만 아니라 교재비도 저렴해서 가정부와 국가경제에도 도움이 됩니다. 친환경용지 1톤을 사용하면 이산화탄소 45%, 대기오염 물질 74%를 줄일 수 있으며 하루 2,700톤 정도 폐지를 재활용하면 매일 30년 생 소나무 43,000그루를 살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간 100만원 종이 수입에 따른 외화낭비를 막을 수 있고 친환경 산업 육성으로 창조경제와 국가 경쟁력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진짜 GR인증 받은 친환경용지로 만든 친환경 교재는 일반교재보다 우리 아이들과 환경, 기계경제 그리고 국가경제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선택을 통해 더욱 많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더욱 묵묵히 친환경을 실천하는 착한기업들 계속 발굴해서 칭찬 릴레이를 이어가겠습니다.

www.ebs.co.kr

6rg 한국자원순환단체연대회의 Korea Recycling Corporate Coalition

Global Leader in Paper 전주페이퍼